

## 막바지에 접어든 미국 부채한도 협상...

Strategist 이영원

02) 3787-2505

youngwon.lee@hmcib.com

Jr. Analyst 김정호

02) 3787-2385

hmcstar@hmc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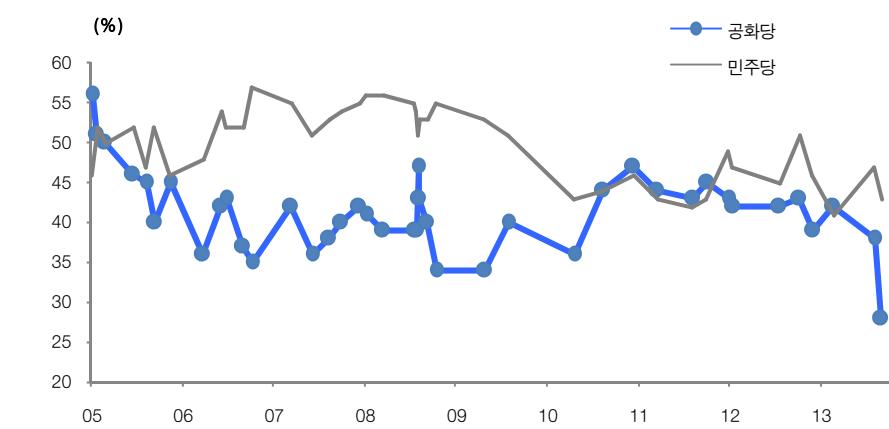
- 미국의 정부폐쇄가 이어지고 부채한도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음.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책적 혼란을 반영 중
- 그러나 실질적인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정치적인 부담이 극단적 결과를 회피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듯
- 정치적인 부담을 제외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인 듯.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질 경우 수급측면의 강점이 지속될 가능성 높기 때문

미국 연방정부 폐쇄에 이어 미국 국채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보유 현금이 고갈된다고 밝힌 10월 17일, 혹은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미루는 등 비상 상황을 감안한 최종 부도시점인 10월말을 감안해도 아직 타협에 이르지 못한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협상과정을 감안하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각 정당의 협상전략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디폴트 선언 이전에 일정한 타협에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협상실패로 본격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 국채의 신인도 하락에 이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폭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여야간의 협상카드가 교환된 상황은 아니지만 과국에 이르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 폐쇄와 부채한도 증액협상지연에 대한 공화당의 책임론이 높아가고 있는 점은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럽의 조사결과 최근 공화당의 지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5년 연방정부 폐쇄 당시에도 긍그리치 하원의장이 이끌던 공화당은 다음 해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여론이 연방정부 폐쇄, 국채 디폴트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치 국면이 실제 과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미국 정당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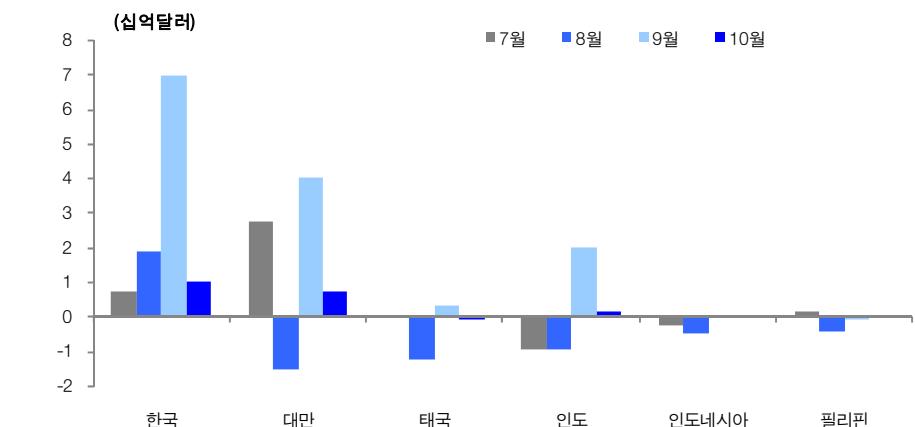
자료: Gallup, HMC투자증권

정책적인 부담을 배제한다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급상황은 한국시장에 우호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들어서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는 이머징 마켓 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한국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유럽, 중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의 경제전망도 이러한 한국시장의 상대적인 우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의 2014년 성장률 전망이 지난 4월 3.9%에서 3.7%로 0.2%p 하향 조정 되었지만 1%p 안팎으로 하향조정 된 중국, 인도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견조한 성장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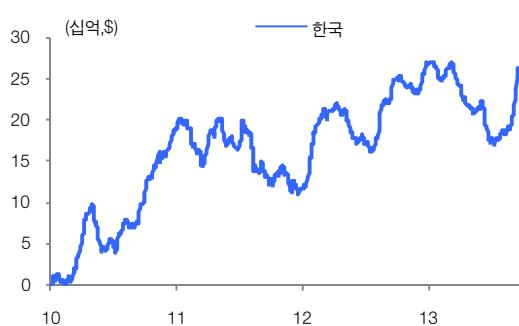
10월 주식시장이 여전히 미국의 정부폐쇄, 디폴트 리스크 등 정책이슈에 매몰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점차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경제전망, 글로벌 경기회복 이슈 등으로 초점이 전환되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 성격변화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2〉 아시아 이머징 월별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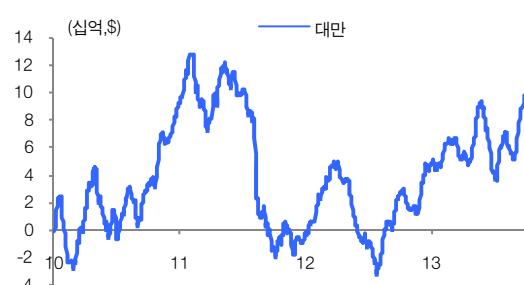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3〉 한국 외국인 순매수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4〉 대만 외국인 순매수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5〉 인도 외국인 순매수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6〉 인도네시아 외국인 순매수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7〉 태국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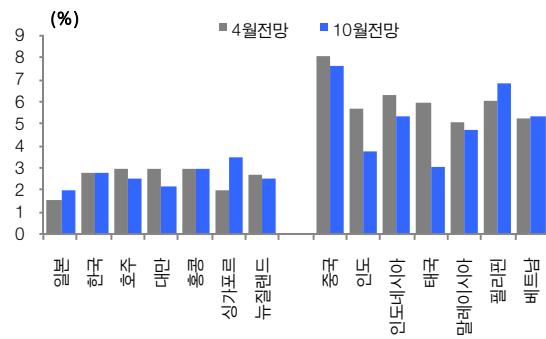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8〉 필리핀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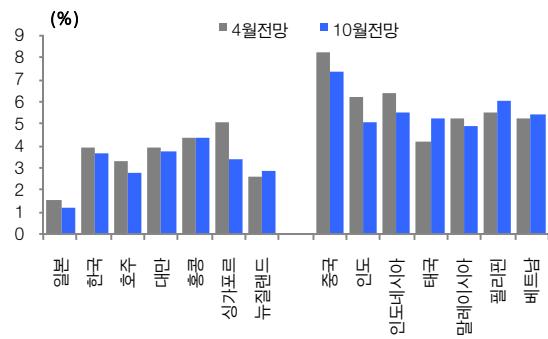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9〉 IMF의 아시아 국가 2013년 성장을 전망



자료: IMF, HMC투자증권

〈그림10〉 IMF의 아시아 국가 2014년 성장을 전망



자료: IMF, HMC투자증권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등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